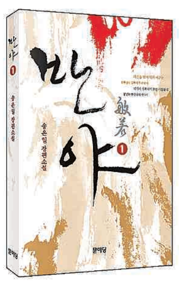
광주일보 신춘문예 출신 송은일씨 장편소설 '반야' 출간

무당, 만인의 평등 외치다



18세기 무렵 한반도에서 만인의 평등을 부르짖는 무리들이 있었다면 지금의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

광주일보 신춘문예 출신 송은일(43)씨가 '한 꽃살문에 관한 전설'(랜덤하우스중앙) 이후 2년 만에 출간한 새 장편소설 '반야'(전 2권·문이당)는 이같은 가정 하에 쓰여졌다.

"천하디 천한 무녀 '반야' 신분적 한계 뛰어넘어 만인 평등세상 꿈꿔"

소설가, 사진작가, 행위예술가 등 6명의 비밀스러운 창작 공간을 보여주는 'Secret of Obscura(어두운 방의 비밀)'전(展)에 참가하느라 최근 바쁜 나날을 보낸 송씨를 지난 24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의 한 카페에서 만났다.

"신화나 설화에 관심이 많아요. 전부터 꼭 다뤄보고 싶었는데 이번 소설을 쓰면서 더 공부가 필요하다고 느꼈고, 아예 대학원에 진학해 체계적으로 연구해볼 생각입니다."

송씨는 최근 고려대학교 문예창작과 대학원에 입학 원서를 냈다. 합격하면 오는 8월부터 일주일에 한 두번은 강의 때문에 서울에 가야하는 고행(?)이 기다리지만 새로운 배움에 대한 기대로 들떠 있었다. 송씨는 "우리 신화에 대한 연구를 통해 새로운 소설 쓰기를 모색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번 소설은 영조 시대 어린 무녀인 '반야'가 운명을 거역하고 떠돌다 '사신계'라는 조직을 만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얼개로 하고 있다. '사신계'의 강령은 '범인(凡人)은 유동등자유이이기지(有同等自由而以己志)로 향생저권리(享生底權利)라'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평등하며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세상을 살고, 삶에 대한 권리를 지닌다'는 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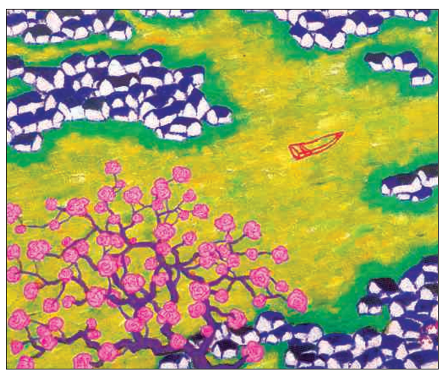
주인공 '반야'나 '사신계'는 허구다. 소설의 시대적 배경을 영조 시대로 잡은 것은 우리나라 근대의 시작을 정조 시대로 보기 때문. 실학의 도입·발전과 함께 설화나 신화가 자취를 감춘 것을 상징한다. 송씨는 "비슷한 조직이 있지 않을까 해서 관련 서적을 뒤졌는데 결국 실패했다"며 "'사신계'는 '사신도(四神圖)' 등의 신화에서 힌트를 얻은 것"이라고 말했다.

"신화·설화에 깊은 관심 소설속 '사신계' 힌트는 '사신도' 신화에서 얻은 것"

전작에서 여성 문제를 주로 다뤘던 송씨는 "여성의 삶이 아름다워지길 바라는 것은 여전하고, 이번 작품 역시 같은 맥락"이라며 "여성인 동시에 천하디 천한 무당 '반야'는 자신의 신분적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사신계'에 합류하면서 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혹시 '반야'가 자신의 전생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송씨는 "잘하지는 못해도 바느질을 즐겨 하는 것을 보면, 전작 '도둑의 누이' 서문에서 썼듯 나의 전생은 양반집 침모(針母)의 딸 정도였을 것"이라며 환하게 웃었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사진=고경석기자 ksgo@kwangju.co.kr



'섬 사이로'

바람불어도 좋은 날

서양화가 정상섭씨 초대전
30일까지 서울 PICI갤러리

서양화가 정상섭씨가 '바람불어도 좋은 날'을 주제로 30일까지 서울 PICI갤러리에서 초대전을 갖는다.

96년 갤러리 도올 전시 이후 11년만에 서울 나들이에 나선 정씨는 강렬한 원색대비와 압축된 공간구성으로 자연과 사물을 스케치한 작품을 선보인다.

그는 나무, 꽃, 산, 바다 등 봄날의 풍경을 조형적 시각으로 새롭게 해석, 동화적이고 시적인 분위기를 캔버스에 담았다.

'섬 사이로' '독도 아리랑'은 사물을 축소하고 원색을 폭넓게 사용함으로써 섬이 놓여 있는 고즈넉한 공간을 강조하는 새로운 작업 경향을 반영하고 있다.

섬과 바다 등 원경에 눈길을 주던 작가는 동백꽃을 형상화한 '동백 바람'을 통해 꽃과 봄을 노래하고 있다.

조선대학교 미술과를 졸업했으며 광주시 미술대전 운영위원, 광주시 장식심의위원, 광주시립미술관 운영위원 등을 지냈으며 그룹 점선면 회원, 전업작가 회원으로 활동중이다. 문의 02-547-9569.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전남문인협회 '문예창작교실'

한국문인협회 전남지회(지회장 조수웅)가 '문예창작교실'을 운영한다.

이번 달부터 매월 둘째·넷째주 수요일 오후 2~4시까지 광주시 서구 농성동 전남문인협회 회의실 등에서 진행되며, 참가비는 무료다.

강의 내용은 문학이론과 창작 실기로, 정형택(시)·김경희(소설)·김민규(수필)·희곡(김영관)·조영일(아동문학)·조수웅(작문과 논술)씨 등이 강사로 나설 예정이다.

수료자에게는 협회 회원 가입 자격이 주어지며, 우수 작품은 계간 '전남문학'에 게재된다. 신인상 등 각종 문학상 후보 추천도 함께 이뤄진다. 문의 062-363-9956.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클래식 향연 '러시아 음악의 밤'

광주시향, 피아니스트 강충모 협연 27일 광주문예회관

요즘 광주 지역에서 유명 클래식 아티스트의 공연을 만나기는 참 어렵다. 흥행에 발목이 묶여 많은 연주자들이 광주 공연은 지나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오는 27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리는 광주시립교향악단(상임지휘 금노상)과 피아니스트 강충모(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사진)씨의 협연 무대는 클래식 팬들의 기대를 한껏 받고 있는 공연이다.

특히 광주시향의 233회 정기공연 무대인 덕에 저렴한 티켓 가격(1만원·5천원)으로 최고의 연주를 접할 수 있는 흔치 않는 기회여서 눈길을 끈다.

피바디 음대 교수 재직중 한국예술종합학교 개교와 동시에 초빙돼 후학들을 가르치고 있는 강교수는 국내에서 유래가 없는 바흐 전곡 연주회 등을 통해 역량을 인정받았으며

2005년에는 한국인 최초로 쇼팽 콩쿠르 심사위원으로 참가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강씨가 연주할 작품은 라흐마니노프의 '파카니니 주제에 의한 랩소디 작품 43'이다.

'러시아 음악의 밤'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연주회는 오페라 '루슬란과 루드밀라' 서곡으로 막을 열며 림스키코르사코프의 교향적 모음곡 '세헤라자데 작품 35'가 선보인다. 문의 062-524-508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제52회 호남예술제 본선 진출자

성악 독창 초등 3·4학년

심사위원
이일성교수(공주교육대)
임해철교수(호남신학대)
정상일교수(대불대)

2 김재형(광주교대목포부설초3)
3 천재원(목포청호초4)
4 진미지(진월초4)
5 정다빈(금당초4)
7 김도희(신암초4)
9 박준석(운리초3)
10 양세미(문산초3)
19 김혜경(광주송원초3)
27 고효경(광주대성초4)
30 김진솔(풍영초4)
42 박도희(광주교대광주부설초4)
47 김아린(광주불로초4)
50 송주혜(유안초3)
52 나세영(계수초3)
56 최화라(운천초3)
60 김태연(광주송원초3)
61 황제아(송정동초4)
65 박동진(송정동초4)
68 이윤혜(광주송원초4)
69 송은진(광주송원초4)
71 백진원(목포한빛초3)
73 최정민(목포한빛초3)
74 서혜영(목포대연초4)
77 김수민(광주송원초3)
83 박현주(광주남초3)
86 허보은(광주송원초3)
90 박혜수(광주교대광주부설초4)
95 송은지(광주송원초4)
96 오은솔(광주송원초4)
97 정서현(유안초3)
98 오윤후(태봉초3)
99 최수현(유안초4)
101 이시은(진월초3)
105 노유빈(광주송원초3)
106 강승연(광주송원초3)
107 이원하(광주불로초4)
108 이소정(조봉초4)
109 조용준(조봉초3)
110 박지수(치평초4)
111 김지연(동림초4)
113 정소영(광주방림초4)
116 강민(풍암초3)
120 정해서(금당초4)
123 한제우(월봉초3)
124 황다솜(정암초3)
125 유주리(운천초4)
126 박윤진(일곡초3)
127 김우진(광주송원초3)
128 강민정(해남동초3)
130 오승빈(살레시오초3)
131 김소정(살레시오초3)
132 김재은(살레시오초4)
135 채서연(살레시오초3)
138 박원빈(살레시오초4)
139 홍효림(살레시오초4)
140 김경은(광주남초4)
141 김강현(목포신흥초3)

※ 위 순서는 예선 경연 순서이며 발표된 순서에 의해 본선 경연을 합니다. 본선은 4월 27일(금) 오후 2시부터 광주시민회관에서 진행합니다.

한국회화 원류를 찾아서

명지미술관, 1급 미술관 등록 기념展 5월24일까지

명지미술관이 미술관(전남도 1급) 등록을 기념해 첫 기획전으로 '한국회화 원류를 찾아서'를 5월24일까지 개최한다.

담양군 고서면 고읍면 '예술의 마을 명지원' 안에 있던 명지 미술관은 그동안 다양한 문화활동과 전시를 펼쳐왔으나 미술관으로서 새로운 위상을 찾기 위해 지정 미술관 등록을 추진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한국화, 서양화, 조각, 사진, 서예 등 각 분야에서 독보적인 작품세계를 구축한 작가 43명의 작품이 선보인다.

한국화 부문에서는 의재 허백련, 변관식, 김기창, 천경자, 조방원, 하철경씨 등의 작품을 볼 수 있다. 서양화는 오지호, 강용운, 양수아, 배동신, 변시지, 박성환씨 등의 작품이 전시된다.

조각에서는 김영중, 박영선씨의 작품이 출품됐으며 서예가 현중화, 김응현, 구철우, 하남호, 이돈흥씨의 작품도 관람객들을 만난다. 사진작가 임응식, 최민식, 강봉규씨의 작품도 선보인다.

명지선 명지미술관장은 "미술관 등록을 계기로 다양한 전시와 사회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지역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지역민의 공간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문의 061-383-2577.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허백련 작 '백운홍수'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메가박스
구.런던약국사거리 ♡예매1544-0600

M관	극락도 살인사건(15세) 최고급관
2관	날아라 허동구(전체)
3관	더블타겟(15세)
4관	극락도 살인사건(15세)
5관	리핑-10개의 재앙(15세)
6관	고스트 라이더(15세)/선샤인(15세)
7관	향수-어느살인자의 이야기(18세)/눈부신 날에(15세)
8관	날아라 허동구(전체)
9관	동갑내기 과외하기:레슨2(12세)

Megatizen Day 매주 월~금 영화 4,000원 관람
* 이프유 주차장 이용시 3시간 무료
(단, 영화 관람고객에 한함):3시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
★무료팝콘 뷔페-티켓만 있으면 팝콘이 무료★

— 주차장이 편한 극장 —
엔 터 시네마
충장로 5가 ☎ 228-2700

1관	동갑내기 과외하기(12세)
2관	이장과 군수(15세)
3관	우아한 세계(15세)
4관	마하2.6(15세)
5관	극락도 살인사건(15세)
6관	300(18세)
7관	고스트 라이더(15세)

금,토(2일간) 심야상영
* 자주식 동시 주차장 200대 <3시간 무료> *
* 매주 금·토 심야 2,000원 할인 *

향토사랑 영화사랑 * 예매:www.joycbc.com/ 1588-7941
콜롬버스 시네마 상무점 하남점
상무점(상무병원과 이마트 사이) 하남점(무역회관뒷편)

1관	눈부신 날에(15세)
2관	〈어린이전용관〉 오세암(전체)
3관	날아라 허동구(전체)
4관	날아라 허동구(전체)
5관	더블 타겟(18세)
6관	닌자거북이TMNT(더빙/전체) / 선샤인(15세)
7관	리핑 10개의 재앙(15세)
8관	고스트 라이더(15세)
9관	동갑내기 과외하기 레슨2(12세)
10관	극락도 살인사건(15세)

* 호남 최대 주차장 ◉매일심야 상영합니다 1588-7941
콜롬버스 하남점(10개관) 절찬리 상영중
상담원연결 방법 →(1번 or 2번)→0번

즐거움이 가득 * www.mc12.co.kr/ 1588-9101
무등극장
충장로 1가 ☎ 232-9106

1관	눈부신 날에(15세)
2관	닌자거북이(전체)
3관	날아라 허동구(전체)
4관	동갑내기 과외하기 2(15세)
5관	극락도살인사건(15세)
6관	리핑(15세)
7관	이장군수(15세) / 선샤인(15세)
8관	고스트 라이더(15세) / 굿셰퍼드(15세)
9관	더블타겟(18세)

* 리버사이드호텔 무등주차장(구 수협) 3시간 무료주차
* 탑클래스 회원만을 위한 전용창구 마련
* 전화예약 가능
* 주말에도 포인트 사용 가능
인터넷 예매 문의 1588-9101